

고천암호 방류 김양식장 황폐화

“염도 낮아져 품질 저하...수십억 피해”

농촌공사 “영농철 수위 조절 불가피”

해남군 송지·현산·화산면 어민들이 한국농촌공사의 고천암호 물 방류로 막대한 김 양식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송지와 현산면 등 고천암호 하류 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한국농촌공사 가 지난 달 26·27일 이틀간 수위 조절

을 위해 고천암호 배수갑문을 개방한 뒤 김 업체가 하얗게 변해 바다에 폐기하는 등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민들은 “농촌공사가 방류한 고천암호 물이 김 양식장을 덮쳐 부유 물질이 증가하고 염 농도가 낮아지

면서 김 업체가 변하는 등 품질 저하로 막대한 김 농사를 망쳤다”며 피해 보상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어민들은 “농촌공사가 겨울철에 물을 빼내거나 깨끗한 상층수를 흘러 보내면 큰 피해가 없는데도 매년 이맘때면 오수나 다름없는 저층수를 방류해 김 양식장을 초토화 시키고 있다”면서 “배수갑문 개방은 김 양식이 끝나는 이달 말에 해도 늦지 않은데도 무책임하게 물을 빼내 어민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력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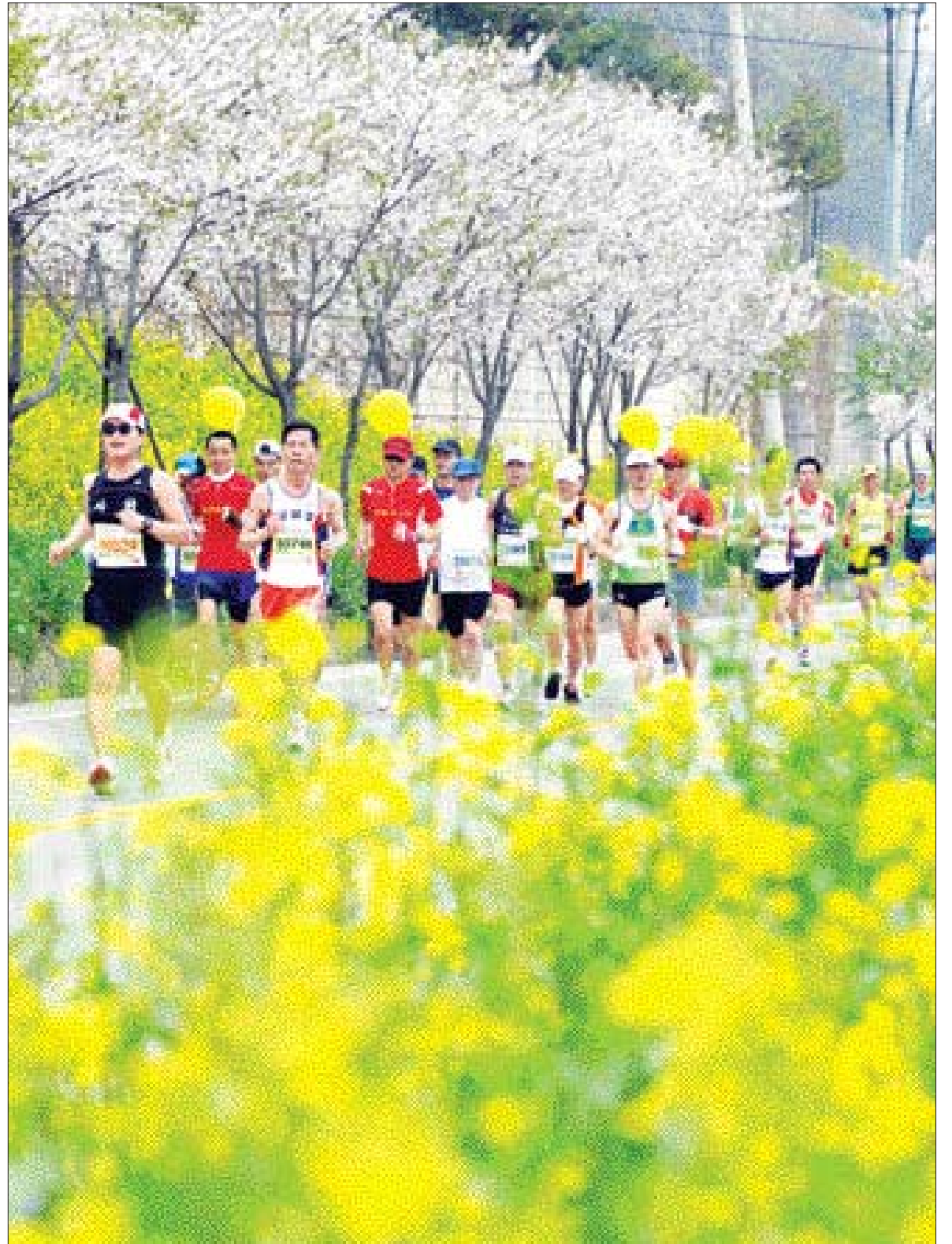
발했다.

한 어민은 “농촌공사에 이같은 피해 상황을 얘기하고, 물 방류 시점 연기와 상층수 물 방류 등 각종 개선책을 건의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서 “농촌공사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어민들만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관련, 한국농촌공사 해남지사 관계자는 “영농철을 맞아 고천암호 수위 조절을 위해 불가피하게 물을 방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함평 나비 마라톤 ‘꽃밭으로’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제 8회 함평 나비 마라톤대회가 13일 함평 공설운동장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5천200여 동호인들은 벚꽃과 유채꽃이 피어 있는 마라톤 코스를 달려 봄의 정취를 만끽했다. /워직라기자 jrwi@

‘우리 밀’ 광산구 대표작물로

가공공장 세우고 재배단지 조성...브랜드 육성

전국 우리 밀의 2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광산구가 국제 밀 가격 폭등에 대비해 우리 밀을 지역 대표 작물로 육성한다.

광산구는 올해 우리 밀 가공공장

(330㎡)을 세우고 송산유원지 주변 28ha에 집단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등 우리 밀을 지역특화 작물로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산구는 가공공장 설치

사업비(19억9천만원)와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경관보전지불제 사업비(2천만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광산구는 본덕동에 1천500여㎡ 규모의 건조보관시설(사일로) 3동을 갖추는 등 우리밀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지난해부터 5월에 우리밀 소비 촉진을 위해 ‘우리밀 축제’를 개최하고 우리밀을 사용한 고추장과 된장을 생산하고 있다.

이밖에 ‘광산구 비전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우리밀 육성계획을 포함시켜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갑길 구청장은 “우리 밀의 재배면적 확대와 함께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지역특화를 통한 광산구 대표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192농가가 383ha에서 1천532t의 우리밀을 생산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공직자 자전거 타기 운동

전갑길 구청장을 비롯한 광산구청 공무원 200여명은 지난 11일 구청 광장에서 ‘공직자 자전거 타기 운동 발대식’을 갖고 승정영 중앙로 일대를 돌며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전갑길 구청장을 비롯한 광산구청 공무원 200여명은 지난 11일 구청 광장에서 ‘공직자 자전거 타기 운동 발대식’을 갖고 승정영 중앙로 일대를 돌며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대나무 휘호대회

5월4일 담양문화회관

제 1회 전국 대나무 휘호대회가 오는 5월4일 담양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제 10회 대나무축제 일환으로 열리는 휘호대회는 담양문화원 주관으로 열리며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서예(한글, 한문)와 문인화 부문으로 나눠 일반부만 진행된다.

시상금은 대상 1명 300만원, 최우수상 2명 각 100만원, 우수상 4명 각 50만원 등이며 대회 참여 작가들에게 죽녹원·가사문학관·대나무박물관 등의 입장권이 무료 배부된다.

/담양=정필수기자 bungy@

휴면 도서 모으기 운동

1만 5천여권 기증 받아

영암군

영암군이 실시한 ‘휴면 도서 모으기 운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 1월부터 석달간 ‘휴면 도서 모으기 운동’을 벌여 기업체, 학교 및 유관기관, 사회단체, 출향인, 공무원, 주민 등으로부터 1만5천여권의 도서를 기증받았다.

군은 기증받은 도서를 영암과 삼호 도서관 자료실, 학교 도서관 및 마을 도서관에 비치하기로 했다.

영암군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도서 모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장흥댐 주변 9억6천500만원 지원

수자원공사 전남 서남권관리단

한국수자원공사 전남 서남권관리단이 올해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9억6천500만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표고 집단재배 시범단지 조성과 농산물 건조장고 신축 등 소득 증대 및 생활기반지원에 4

억8천200만원이 투입된다.

또 빈곤가정 생필품 지원을 비롯해 댐 주변 환경정비 근로사업 등 주민생활 지원에 4억8천300만원이 사용된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유치와 부산초등학교에 원어

민 감사 초빙 교육도 실시된다.

한국수자원 공사는 발전판매 수익금과 생활·공업 용수 판매 수익금 일부를 출연한 금액으로 댐 건설이 완료된 주변 5km 이내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 사업을 펴고 있다.

이관호 전남서남권관리단장은 “앞으로도 장흥댐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화순 향토음식연구회 ‘웰빙 한정식’

세계 관광·음식 박람회 ‘금상’

화순 향토음식연구회가 지난 3~7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개최된 ‘2008 서울 세계관광 음식·식품 박람회(WTFE 2008)’ 한국음식전시경연 부문에 ‘화순 웰빙 한정식 상차림’을 출품, 금상을 수상했다.

‘화순 웰빙 한정식 상차림’은 회원 10명이 화순 10대 특산물을 활용해 새롭게 개발한 더덕 떡갈비, 홍삼 오들계, 파프리카 두부 등 다채로운 메뉴로 꾸며졌다.

심은 향토음식연구회장은 “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화순 특산

물로 한정식을 개발하게 됐다”며 “앞으로 ‘화순 웰빙 한정식’을 일반에게도 선보이고, 직접 한정식 메뉴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장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조직된 화순 향토음식연구회는 회원 2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농·특산물인 파프리카 등을 이용한 퓨전 음식 등을 개발하고 남도 음식문화축제 등 각종 행사에 화순 향토 음식을 출품, 보급에 힘쓰고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스카이뷰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국제외식산업(주)

☐ 바비큐 뷔페 ☐ 출장뷔페
☐ 한정, 정찬 ☐ 도시락
☐ 결혼 뷔페

예약상담 0621262-2278

“스카이뷰” OPEN

재혼만 11년!

▶ 결혼 11년째는 수줍게 사랑하는 아내
▶ 애절한 연애를 기억하며
▶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 행복을 꿈꾸며
▶ 아름다운 **웨딩**을 계획하는 영웅
▶ 남의 눈에는 재혼인데 남의 마음에는
▶ **영복을 꿈꾸는** 행복한 재혼

1층 ☎ 527-3388

▶ 어 커뮤 매니저 직권 구함